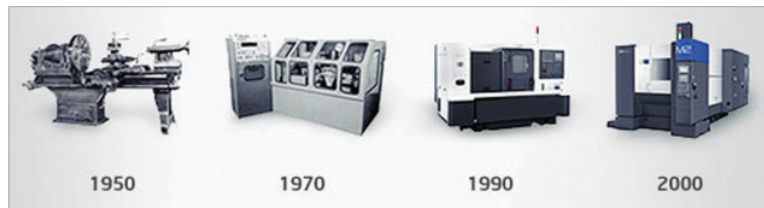


사전 준비를 통한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E사는 1952년 설립된 이래 60여년간 머시닝센터, 선반 등 금형 공작 기계에만 집중,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



2. 활용 전 상황

- 국내 3대 제조회사로 꼽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전세계 30여개국 수출, 매출의 20%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음
- 한·EU FTA가 발효되면 EU측 현행 관세율 2.7%가 즉시 철폐되어 FTA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위해 부분품의 HS코드 분류 작업을 시작

3. 장애 요인

- FTA 활용을 위해서는 재료를 HS코드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재료 명세서가 필요했으며, 6백여개의 부품 HS코드를 일일이 분류하는 준비 과정이 FTA 활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

4. 극복 방법

- 20여개 부품 공급사와 협력하여 세관 교육도 함께 받고 부품의 HS코드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머시닝센터, NC선반 등 2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하여 품목별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한·EU FTA 협정 혜택을 받음
- 한·EU FTA 발효 후 독일에서 40만불 상당의 부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이 아닌 실행세율로 통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요청
- 한·미 FTA의 높은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액의 부품들도 원산지, 공급단가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급업체 담당자 교육 및 ERP시스템과 원산지확인서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

5. 활용 효과

- 원자재 수입의 한·EU FTA협정 적용으로 관세 4천여만원 절감
- 한·EU FTA 발효 후 1년 동안 EU 수출시 약 6억원 상당의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, 수출물량도 발효 전 1년과 비교하여 70% 증가하는 FTA 효과 발생
- 한-미 FTA 발효 초기부터 4.4%의 관세철폐 혜택과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의 혜택으로 對미 수출액이 205%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 한 해 약 10억원 상당의 원가를 절감

6. 시사점

- FTA 발효시기에 맞춰 활용방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,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FTA 활용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